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김희겸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이 '안전팔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후속 참가자들이 다음 참가자들을 각각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길용 의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최우선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2021년도 회기 시작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1월 12일 제25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1월 12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월 15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가졌다.

한편, 2021년 고양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차례의 회기를 총 97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길용 의장은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우리는 위기 때마다 지혜를 모아 이겨낸 저력이 있다"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고양시민 모두가 다시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상식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면
한랭질환에 유의할 것!**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등 기온변화가 잦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위에서는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이 있다. 한랭질환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편집부

질환	의미	증상
저체온증	내부 장기, 근육 체온 등의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심장, 폐, 뇌 등 주요 장기 기능이 저하된다.	오한, 피로, 의식 혼미, 기억 장애, 언어 장애 등
동상	강력한 한파에 노출되어 표재성 조직이 동결, 조직이 손상되는 현상이다.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등의 노출 부위에서 나타난다.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필요할 수 있는 겨울철 대표적인 질환이다.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피부 촉감, 피부 감각 저하
동창	저온 다습한 상태에서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말초 혈류 장애에 의해 나타나는 피부,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이다.	국소 부위 가려움, 심한 경우 울혈, 물집, 궤양 등 발생

[한랭질환에 취약한 계층]

주로 보은 대책이 미흡한 노인, 아영이나 노숙을 하는 등산객,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실외 작업자에게 발생한다. 이 밖에도 과음한 사람이나 물에 젖은 사람, 노숙인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노인들은 추위에 대한 방어기전 능력이 떨어져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젊은 층보다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음주자들은 술에 취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자신이 추위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한다.

[한랭질환 예방 수칙]

1. 외출 전 반드시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따뜻한 옷을 껴입는다. 모자나 귀마개, 마스크, 목도리, 장갑 등 보온아이템을 챙기도록 한다.
2. 어린이나 노인 등은 강추위 속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3.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 18~20도를 유지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며 체온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도록 하자.